

# 특구도시 익산, 지방시대 선도

### 익산시, 지방시대위원회 추진 '문화·교육발전·기회발전특구' 3개 잇달아 선정 '퀘거'

익산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특구에 잇달아 선정되며 지방시대를 선도할 든든한 발판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개정 전 법정문화도시) 3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나머지 1개인 '도심융합특구'의 경우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초자치체인 익산시가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가능한 모든 특구 사업에 선정된 셈이다.

지방시대위원회 4대 특구의 핵심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항하여 아예 배제해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 특구는 기업 투자유치부터 인재 육성, 산업 혁신 등을 통해 지방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기회발전특구'는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서는 받을 수 없는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가 파격적으로 적용된다.

익산시는 기회발전특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약품과 건강 기능성 식품 등 지역 특화 산업을 공략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제3산업단지 확장부



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일부 구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며 바이오·식품 기업 투자유치에 큰 날개를 달았다. 시는 관련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정된 '교육발전특구'를 활용한 연계 상승효과도 기대를 모은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부 주도로 유아기부터 대학까지 명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길러진 인재가 지역에 그대로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다양한 교육혁신사업을 시도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부터 생명산업 기반 고등산학관 커피링 사업, 학교와 기업을 연계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설립, 대학 교육자원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 캠프

프 등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시는 원광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6년까지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80%까지 단계적 확대에 나선다. '문화특구'는 지역 특색이 녹아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 발전을 이끄는 대표 법정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역의 변천사와, 인적·물적·문화적 유산을 돌아보고 후손에게 그 기억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익산은 과감한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특구 도시 익산이 가진 특별한 혜택과 지역 살리기를 위해 추진하는 적극적인 사업들을 통해 활력 있는 지방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활동 시작

### '키움옴 가족행복도시' 군산을 위한 시민참여단 발대식

군산시의 인구정책 자문기구인 '군산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1차 회의가 8일 첫 개최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신원식 부시장이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참여단은 군산시의 인구정책 현황을 공유하며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 6월 5일부터 18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3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남자 5명, 여자 7명 등 총 12명의 시민참여단을 선발했다.

활동기간은 6개월이며 생애주기별 3개 분과(△임신·출산·양육·교육, △청년 △고령친화)로 구성되었으며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 열린 1차 회의에선 정책 수요자의 시각에서 기탄없는 논의가 오고 갔으며, 군산시 인구정책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을 제안하며 정책 아이디어도 함께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하는, 다동이 엄마 이유정 씨는 세대가 통합되어 다 같이 함께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지원 정책이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학원비 등 아이들이 때까지 드는 비용이 적지 않아, 청소년기까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는 바람도 나타냈다.

이외에도 손주돌봄수당을 제안한 나상수 씨, 인구관련 정책과 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건의한 두혜림 씨 등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신원식 부시장은 "생애주기별로 시행될 군산시의 인구정책은 모든 군산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경력과 생각을 가진 시민참여단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피드백을 부탁드리며,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 분위기를 확산과 전 사회적 참여를 위해 활약해 주실 거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제2차 군산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정기회의는 9월에 열릴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평가서 장관 표창

군산시가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지난 3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8월에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경사를 맞았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장관 표창을 받은 기관은 군산시, 해양수산부, 기술보증기금, 대구교통공사 4개이다.

특히 군산시는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평가 영역인 △관리체계 정비, △신규 데이터 개방, △활용도 제고, △품질관리 영역에서 지자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그동안 군산시는 데이터 보유 부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년간 꾸준히 공공데이터 개방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2년 연속 확보했고, 이번에는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여성친화일촌 기업 협약식 개최

익산시가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여성 일자리 활성화 및 행복한 일터 만들기 나섰다.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장정남)는 9일 익산여성회관에서 밀크트리 등 17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친화일촌 기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 내 여성 일자리 창출과 구인·구직, 알선취업 연계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 확립과 적극적인 여성 인력 채용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인턴십 지원, 기업환경 개선사업, 경력단절 예방지원 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정책장터 우리들의 군산' 성료... 시민 의견 수렴

### 시민의 지역현안 발굴·토론·제안 등... 적극적 현장행정 운영



군산시가 시민의 정책발굴 및 시정 공유 시스템 '정책장터 우리들의 군산'을 가동하며 시민의 소중한 정책 제안을 토론회와 참여를 통해 수렴하는 적극적 현장행정을 운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책장터는 분야별 정책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평소 생각하고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보고 논의하는 속의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 군산시가 평소 어렵고 무겁게 느껴졌던 정책을

놀이와 접목해 내놓은 야심찬 정책 축제이다.

지난 6일 시청에서 펼쳐진 올해 첫 정책장터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정책장터에는 시민 1천여 명이 참가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특히 시장, 시의장, 그리고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보는 '시민과의 토크 콘서트'는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

은 도시를 위한 시책, 월명수영장 폐쇄에 따른 군산시 대응 방안,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에 대하여 시민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열띤 모습을 연출했다.

또한, 시민들이 분야별로 삼삼오오 조를 이루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어보는 '확자지점 원탁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외국인, 노인 분야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추, 사전에 온라인으로 접수된 시민들의 제안에 대해 시민이 직접 투표해 우수 제안을 가리는 '내가 뽑는 정책마당'에서는 군산시 거주 구의원들 간 실시간 정보 교류 및 지역사회 참여를 돕는 '지역 초밀착형 소셜 플랫폼 지.멤(G.Mem)'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김임준 군산시장 역시 "정책장터(우리들의 군산)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대, 첨단산업 이차전지 부트캠프 선정

### 5년간 85억원 지원... 이차전지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는 교육부의 '2024년도 첨단산업 이차전지 부트캠프' 인력양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 부트캠프 사업은 대학이 기업과 공동으로 첨단산업 중 이차전지 분야 대학생 대상으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취업까지 지원하는 인력양성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년이며, 국립군산대학교는 5년간 교육부로부터 74억원을 지원받고, 지자체와 민간 및 대학 대응 자금을 포함하여 총 8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본 사업에는 화학공학과, 신소재

공학과, 환경공학과, 첨단과학기술학부, 에너지신산업학부가 참여할 예정이다.

군산세마금 산업단지는 2023년 국가첨단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되었고, 이차전지분야의 20여개 기업이 9조원 이상의 투자를 약속하고, 7천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국립군산대학교는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산학협력 신기술 개발,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의 이차전지 산업의 발전과 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